



독서치료와 언론중재위원

언론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복귀한 기분이랄까? 묘한 상태가 요즘이다. 처음 취재를 나갔을 때 어색함과 호기심뿐만 아니라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떨림이 있었다. 언론중재위원 소임을 받고서는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일을 한다는 설렘이 일었다. 이 설렘도 잠시 신문에 재직 시 피신청인 자격으로 몇 차례 출석한 경험을 떠올리니 오히려 담담한 상태가 되었다. 언론을 떠나면서 시작한 일이 있다. 신문기자를 했으니 'NIE(신문활용교육) 지도사', 평소 책을 가까이 했기에 '독서지도사'와 '논술지도사'가 됐다. 이들 공부를 하면서 '독서치료'라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갖게 됐고 현재는 독서치료분야의 일만 하고 있다. 이런 공부를 하게 된 연유는 맛별이하는 자식 내외를 위해 손주들을 잘 키워주신 선친을 닮아 내 손주를 직접 가르쳐보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다.

손주들이 세상에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2012년 4월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길지 않은 봉사활동기간이지만 그동안 그늘진 곳에 있는 많은 이들을 만났다. 만났던 분 중에는 하늘나라로 가신 분도 계시다. 김정고시에 합격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한 청소년도 있다. 형기가 남아 아직 교정시설에 있는 이도 있다. 이분들 모두가 나의 새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 분들이다.

청주에 있는 한 요양원에는 매주 저를 기다리는 할머니들이 계신다. 이분들은 저를 '노래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처음부터 나를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다. 할머니들에게 그림책과 동화책을 읽어드린 다음 얘기를 나누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려보면서 잠시나마 즐겁던 옛 시절을 회상토록 해드렸다. 그리고 연세가 높기 때문에 죽음을 맞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활동을 했다. 할머니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난이도를 조절하던 중에 노래를 들려드리고 독서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해봤다. 그런데 노래를 들으면서 할머니들이 박수로 장단을 맞추고 노래를 따라 부

르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그래서 요즘은 그림책과 동화책을 제쳐놓고 1970년대 이전 노래를 골라서 들려드리고 대화를 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노래치료'라고 부르고 있다.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나름대로의 독서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할머니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 받아서 들려드리다 보니 노래선생님이 됐다. 가끔 약속시간보다 일찍 요양원에 도착하면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증상이 있는 할머니들이 각자의 방에 계시다가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질질 끌거나 앉은뱅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밀고 또는 휠체어를 타고 프로그램 장소로 나오시는 것을 목격한다. 이런 광경이 내가 힘이 들더라도 요양원에 꼭 들러서 할머니들을 만나야 하는 이유다. 할머니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정해진 날에 갈 수 없으면 별도로 날을 잡고 시간을 마련하여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다.

교정시설에서 자원봉사로 독서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울면서 딸에게 맘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정을 털어놓던 분이 있었다. 딸이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었지만 온 몸의 문신 때문에 해수욕장을 딸과 함께 가지 못하는 아버지였다. 문신을 지울 수도 없는 상황이니 딸에게 팔목의 일부만 보여주고 이래서 딸의 바람을 들어줄 수 없음을 아버지로서 아픔을 얘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알려주니까 환하게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또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했다며 자랑하던 재소자에게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료들의 박수를 유도하고는 그 열정을 수능시험으로 이어가도록 격려했을 때 얼굴을 붉히던 그 청년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언론중재위원으로서 설렘은 없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봉사활동에서는 그 직책이 독서치료프로그램을 더욱 살찌우고 더 많은 애것거리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봉사활동을 더 열심히 하면서 처음 맡은 언론중재위원의 소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